

##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최규수\*

— <차 례> —

- I. 서론
- II.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
  - 1. 자탄가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
  - 2. 달거리 형식을 채용한 작품들
  - 3. 변이의 자장과 異形態의 작품들
- III.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
  - 1. '사친' 주제의 전면적인 형상화
    - (1) 자탄형의 경우
    - (2) 월령형의 경우
  - 2. '同名異作'의 방향성이 갖는 의미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의 문제의식은 규방가사의 자료적 실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친가>에 대한 기왕의 연구사적 성과가 소략한 대신, <사친가>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료들은 의외로 양적 비중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친가>라는 제목으로 포괄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분류하여 대상 자료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한 후(2장의 작업),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를 좀더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3장의 작업).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한 결과, 동일제목임에도 '자탄형'과 '월령형'이라는 두 유형을 기준으로 다수의 작품이 존재하였으며, 변이의 자장 안에서 異形態의 작품들도 존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를 살핀 결과, <사친가>는 기왕의 규방가사 작품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왔던 '사친' 주제를 본

\* 명지대학교

격화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특징적인 형상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同名異作’의 형태로 <사친가>가 필사/항수되면서 각기 지속적인 항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주제어 사친가, (여자)자탄가, 월령가(달거리 형식), 사친, 효양, 규방가사

## I. 서론

이 글의 출발점은 규방가사의 자료적 실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소개된 작품들을 보다 면밀히 주목하여 작품 이해의 기본틀을 공고히 다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다. 근래 연구자가 행한 일련의 논의<sup>1)</sup>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형별 전제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징을 찾고 그 의미를 다채롭게 부여하는 과정적 이해가 규방가사의 실상을 진단하는 일단계 작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대상자료로 선택한 <사친가>는 기왕의 규방가사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품군으로, 종래에는 <여자자탄가> 등과 비교하거나<sup>2)</sup>孝담론의 차원에서 典故引用의 양상을 분석하였을 뿐<sup>3)</sup> 본격적인 논

1) 최규수,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욕망과 ‘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집(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8), 319~350면; 최규수, 『아버지 작 계녀가의 변이양상과 시가교육적 함의』, 『어문연구』36권 4호(한국어문연구회, 2008), 323~347면; 최규수, 『홍씨부인 계녀사에 나타난 자전적 슬화의 글쓰기 방식과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역락, 2002), 221~238면; 최규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貴女歌>의 특징적 면모와 ‘貴女’의 의미』, 『한국시가연구』26집(한국시가학회, 2009), 341~369면.

2) 이재수, 『女子自歎歌 研究』, 『동양문화연구』2집(동양문화연구소, 1975), 2~9면; 이재수, 『내방가사연구』(형설출판사, 1976).

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sup>4)</sup> 하지만, 동일제목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쪽에서는 ‘여자자탄가’와 같은 부류로 접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월령가(혹은, 달거리)’와 동일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략하게나마 이루어진 <사친가> 논의가 두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연구자가 <사친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사적 정황이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과 맞물려, 또 다른 규방가사 작품에서 <사친가>를 언급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 소설책도 일그면서 사친가도 봉독하고 ... 부지런은 제목동들 사친가를 외부르나 ... 가진명절 좋은때에 동니부인 모여안자 가사책도 일그면서 소설책도 서로볼제 ... (<여탄가>)

위에 인용한 <여탄가>는 경북 의성군의 화실댁이 필사한 작품으로 전해지는데, 권영철은 여자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하되 그러한 와중에도 시집살이 규범을 다시 되새기며 아우르는 한국여인의 생활양식을 잘 보여주는 가사작품이라 소개하고 있다.<sup>5)</sup> 이를 통해볼 때 <여탄가>는 여자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긴밀한 작품이라 여겨지는데, 바로 이러한 작품에서 <사친가>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사친가>의 향수상이 의외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조금상, 『사친가류 가사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4) 그나마 다음의 논의들에서 <사친가>에 대해 단편적인 논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태호, 『월령체가의 내용적 연구』(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70); 박준규, 『월령체가 연구』(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72), 35-38면; 이규순, 『규훈류 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성무경, 『가사와 잡가의 접점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9집(반교어문학회, 1998), 203-240면.

5)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 273-284면.

이에 이 글에서는 <사친가>라는 제목으로 포괄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분류하여 대상자료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한 후(2장의 작업),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피고자 한다(3장의 작업). <사친가>에 대한 기왕의 연구사적 성과가 소략한 대신, <사친가>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료들은 의외로 양적 비중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방가사의 유형별 분류는 초창기 연구자들이 다대한 자료들을 양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된 특징에 따라 나뉘 좋은 잠정적인 분류태일 수도 있기에, 유형화의 공고한 틀에서 벗어나 대상자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II.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

### 1. 자탄가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

<사친가>는 제목에 ‘사친’을 내세운 만큼 결혼하여 친정을 떠난 여성의 사친지정을 형상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근접한 작품군이 바로 자탄가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로, 이를 ‘자탄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자탄형 <사친가>는 다음과 같이 여자의 결혼풍속을 기준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단락	절차적 기준	중심내용
(1)	서사	여자신세 한탄
(2)	출생에서 6, 7세까지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자식사랑과 은혜 서술
(3)	議婚	구혼과 택일, 납채 등의 준비과정과 광경 서술
(4)	新行	신행준비에서 석별 광경, 어머니 혼계 등의 내용 서술

(5)	현구례	폐백 절차와 광경 서술
(6)	三日入廚	시택에 입성하여 적응하는 과정 서술
(7)	觀親	근친 과정과 기쁨 서술
(8)	결사	여자신세 한탄
(9)	축원과 필사기	부모의 만수무강 축원과 필사 관련 당부의 말

그런데, 출생에서 성장·成婚에 이르기까지 出嫁外人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여자의 일생을 기준으로 삼는 양상은 혼인 절차에 따라 작품을 구성하는 규방가사 작품에서 익히 보아온 바다.<sup>6)</sup> 이재수는 <여자자탄가>를 논의하면서 ‘여자유행가·여자자탄가·사친가’ 등을 대상으로 이들 유형을 비교할 12항목을 선택하여 검토한 바 있는데, 이들 작품들이 사소하게 添削되는 한두 가지 항목의 차이가 존재할 뿐 크게는 대동소이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럼에도 자탄형 <사친가>가 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어느 부분에서건 해당 단위마다 친정부모와 연관된 언급을 빠짐없이 함으로써 <사친가>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틀로 다듬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의 단락에서는 ‘원부모 이형제’하는 ‘여자일신의 가소로움’을 서술하되 ‘부모인정’ 생각에 사무치는 마음도 아울러 피력하고, (2)의 단락에서는 “아들 딸이 분간없이 주옥같이 사랑하며” 키워주신 부모 생각을 나타낸다. (3)의 단락에서는 혼례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새삼 “자식사랑 우리부모”·“자정있는 우리부모”임을 재삼 확인하며 “넉넉잖은 우리살림 부모간장 오죽하리”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구성단위마다 친정부모

6) 박경주, 『변형계녀가의 장르적 특성과 담화양상 고찰』, 『규방가사의 양성성』(월인, 2007); 송재연, 『계녀가사의 구성 양상과 서술특성』(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7) 이재수, 앞의 글, 18-19면.

에 대한 언급을 거의 빼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탄형 <사친가>는 여자신세 한탄, 여자의 일생 서술, 실행 및 석별의 광경 묘사 등 여러 작품들에서 보아온 모티프들을 가져오되, 이를 사친지정의 표출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재조합해놓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외관상으로는 여타 유형군에서 보이는 모티프들과 공통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티프를 주제에 맞게 변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것들과는 다소나마 차이를 갖는 새로운 작품이 되는 셈이다.

자탄형 <사친가>에 해당하는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출처(소장처)
5. 사친가라	이정옥, 『영남내방가사』1권
2. 사친가라	이정옥, 『영남내방가사』3권
7. (경복대본) 사친가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616. 사친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12권
617. 사친가	
1190. 사친가	
1192. 사친가	
1193. 사친가	
1194. 사친가라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24권
1834. 사친가라	
12. 사친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39권
4. 사친가	최태호, 『내방가사』
6. 사친가	
70. 사친가	권영철, 『규방가사 1』
86. 사친가	
思親歌	권영철,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사친가	김기동, 『韓國 古典文學全集』
사친가	이재수, 『<여자자탄가> 연구』 <sup>8)</sup>
사친가	고정옥, 『가사집 2』

8) 이재수는 <여자자탄가>를 논의하면서 비교 대상자료로 <사친가> 영천본 6, 7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논의에서는 작품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

## 2. 달거리 형식을 채용한 작품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달마다의 절기 풍속을 언급하면서 전고인용을 통해 ‘사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로, 이를 ‘월령형’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정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작품양상을 볼 때 작품의 구성단락이 매월마다 이루어지는 월령의 주기가 된다는 점을 주목한 명명이다.

월령형 <사친가>의 경우, 다음에서 보다시피 매월마다 初頭와 末尾 부분이 정형화된 표현으로 반복되면서 한 달 단위로 자체 완결되는 시간적 구성을 갖게 된다.<sup>9)</sup> 이때의 기준은 매월의 절기에서 연상되는 ‘사친지일’이 되는데, 하나의 작품 안에서 한 달이라는 균질한 단위의 시간성이 12회나 반복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월령	초 두	말 미
1	正月이라 十五日에...	... 슬프다 우리부모 上元인줄 모르시나 그달을 虛送하니
2	二月이라 寒食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清明인줄 모르시나 그달그름 다지내고
3	三月이라 삼진날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踏青節을 모르시나 그달을 虛送하고
4	四月이라 초파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觀燈節을 모르시나 그달을 虛送하고
5	五月이라 端午일에...	... 슬프다 우리부모 鞦韆節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6	六月이라 유두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流頭節을 모르시나 그달그름 다지내고
7	七月이라 七夕日...	... 슬프도다 우리부모 七夕인줄 모르시나 그달그름 허송하고
8	八月이라 秋夕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秋夕인줄 모르시나 그달그름 허송하니
9	九月이라 重九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重九일을 모르시나 그달그름 다보내고
10	十月이라 天馬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冬至일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11	十一月 冬至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冬至일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12	十二月 除夕일에...	... 슬프도다 우리부모 除夕일을 모르시나

으며, 별도의 자료 공개는 따로 하지 않았기에 작품 전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9) 편의상 『주해 가사문학전집』에 실린 <思親歌>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결사	一年一度 九十春光 덧업시 도라오니 無情歲月 若流波라 思親之日 不多하니 부모봉양 힘쓰고 부대부대 명심하오 슬프도다 우리부모 한번가면 다시사나 생전에 극진봉양 힘쓰고 힘쓰소서
----	---

그런데 월령형 <사친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련하다, 슬프다. 허송(세월)하다, 사친, 부모효양(봉양)’과 같은 키워드가 매월마다 반복적으로 나옴에도 적지 않은 분량을 채우는 것은 이러한 키워드와 거리가 먼 節氣 관련 고사 인용에 있다는 사실이다. 기왕의 논의에서 孝담론의 차원에서 전고인용의 양상을 주목하고, 규훈류의 맥락에서 <사친가>를 조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10)</sup> 예컨대 量的 肥大의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6월령<sup>11)</sup>인데, 8월과 10월령이 6줄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분량이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 ‘사친’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절기’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전고인용의 양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규순, 『규훈류 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조금상, 『사친가류 가사연구』(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11) -“六月이라 유두일에 乾坤이 有意하야 良辰이 삼겜세라 紅爐流金 되엿스니 裸體 露髮 못건디네 나도미리 피서하야 어대로 가잔말고 죽장망혜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 조커니와 廬山이 여기로다 飛流直下 三千尺을 옛말로 드렸더니 疑是銀河 落九天이 果然虛言 아니로다 箕山을 넘어드러 潁水로 내려가니 巢父는 어이하며 물가에 귀를씻고 許由는 무삼일고 쇄고삐를 거스렀노 창랑가 반겨두고 소래조차 내려가니 嚴陵灘 여울물에 고기낚는 저어옹아 양구는 무삼일고 黃山谷 드러가니 竹林七賢 모였서라 寧戚은 소를타고 孟浩然은 나귀타고 杜牧之를 본연후에 白樂天 차자가니 呂洞賓은 사슴타고 張騫은 사자로다 臥龍岡山 草堂中에 孫吳兵書 흥중에 감초오고 초당에 조을면서 梁甫吟만 읊는구나 物外狹經 다마리고 탄탄대로 다시차자 汶水에 배를타고 伊川으로 흘러져어 明道계 길을무러 濂溪로 내려가서 晦庵에 드러가니 性理大典 家禮冊을 좌우에 버려노코 四書三經 禮記春秋 集註를 내시니 豪傑之風이오 聖賢之學이로다 古來天地 幾千年고 金聲玉振 여기로다 江山風景 이러하니 금지할이 뉘잇스리 어화 벗님네야 빈천을 한치마라 이러듯 노닐 적에 슬프도다 우리부모 流頭節을 모르시나 그달그름 다지내고...”



그런 점에서 월령형 <사친가>는 비교적 균일한 규모의 제한성으로 (기계적인) 반복이 용이한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월령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특별한 변이 없이 이러한 구성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데서도 쉽게 확인된다.

월령형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출처(소장처)
613. 事親歌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12권
614. 事親歌	
615. 事親歌사친가라	
1191. 사친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24권
1833. 사친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39권
월령가	봉화군, 『전통문화의 맥』
달거리	김사엽, 『조선민요집성』
사친가	고정옥, 『가사집 2』
8. 사친가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16. 달거리	
사친사	정재호 편, 『한국잡가전집』1권
사친가 별조: 박춘재 소리	정재호 편, 『한국잡가전집』2권
사친가	
사친가: 혹은 달거리라 하오	
사친가	
사친가	정재호 편, 『한국잡가전집』3권
사친가 별조: 박춘재 소리	
사친가	

### 3. 변이의 자장과 異形態의 작품들

일찍이 <사친가>를 소개한 고정옥은 <사친가>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여자신세를 한

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마다 있는 절기행사에 맞춰 부모생각에 빠져 그리움을 호소하는 것이라 정리한 바 있다.<sup>12)</sup> 더 이상의 논급이 없이 간략하게 언급된 이러한 지적이 <사친가> 논의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는 듯한데, 앞서 행한 대상자료의 검토 결과와도 궤를 같이하는 국면이다.

그런데,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하고 보면 기왕의 논의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 항에서 다루는 異形態의 작품들이다. 대상자료를 개관하면 어느 쪽이든 제목만으로는 그 유형을 단번에 짐작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자료 검토를 하고 보면 동일 제목의 작품군으로 묶기에는 다양한 실상의 이형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혼경회가: 사친가>와 같이 부모의 회혼일을 맞아 경사스러운 자리를 빛낼 목적으로 창작되거나, '회심곡'과 같은 유형의 작품도 발견된다. 또한, 제목은 <사친가>라 붙여져 있으나 그 서두부터가 상이한 다음의 작품은 실상 <자치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3)</sup>

- 건곤이 조판하고 만물니 풍성하니 심령할사 스람니요 미련홀사 김성니라 ...

더욱이 최근세까지도 자탄형의 변이된 자장으로 <사친가>를 창작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지 않은데,<sup>14)</sup> <사친곡>이나 <망월사친가> 등 다양

12) 고정옥, 『가사집 2』(여강출판사, 1991), 13-18면.

13) 규방가사권에서 <자치가>의 활발한 향수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육민수, 『필사문화권에서 실현된 가창가사의 담론 특성-규방에서의 향유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1집(반교어문학회, 1988);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양상과 전승과정 연구』, 『관소리연구』30집(관소리학회, 2010), 353-354면;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학과언어』11권1호(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14) 김정화는 현대 규방가사를 대상으로 가사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역동적으로 이어지

한 제목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윤희덕이 소개한 <사친가>라는 작품 역시 대표례로 주목할 만하다.<sup>15)</sup>

이러한 변이의 자장과 이형태의 작품들 중 일부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출처(소장처)	유형
6. 사친가라	이정옥, 『영남내방가사』1권	자치가형
618. 회혼경회가: 사친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12권	회혼가형
5. 사친가	권영철, 『규방가사 1』	회심곡형
4. 사친가	권영철, 『규방가사1』	변이의 자장
70. 사친가	권영철,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86. 사친가		
사친가(思親歌)	이대준, 『안동의 가사』	
사친가(思親歌)		
사친가(思親歌)	봉화군, 『전통문화의 맥』	
사친가(事親歌)	봉화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사친가	윤희덕, 『사친가에 관한 연구』	

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존재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사친가>를 구심점으로 한 변이의 자장 역시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간단치 않은 작업이므로 별도의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제32집(고전문학연구회, 2007), 139-140면.

15) 윤희덕, 『사친가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논문집』34권1호(충주대학교, 1999), 11-39면.

### Ⅲ.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

#### 1. '사친' 주제의 전면적인 형상화

앞선 작업에서 주목할 사항은 제목의 고정성이 큼에도 텍스트 차원에서 數的 분포도가 큰 두 유형이 있다는 점이다. 곧, '자탄형'과 '율령형'으로 명명한 작품들은 어느 쪽이건 양적으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이며, 유형별로 대동소이한 필사작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렇게 동일 제목의 다른 작품이 규방가사권에서 왕성하게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과는 상통한다. 그 토대에는 <사친가> 향유의 적극성이 담보되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향수상의 근거를 주목한다면 규방가사 이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로 주목할 첫 번째 지점은 '사친' 주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며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피는 작업이다. '사친'의 주제는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에서는 비교적 흔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작품의 제목으로 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사친 주제를 보다 본격적으로(또는,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1) 자탄형의 경우

우선, 자탄형 <사친가>에서 부각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음에서 보다시피 서사의 표현에서부터 '부모생각'에 집중하여 사친지정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강한 데서 충분히 예견되는 바이기도 하다.

- 가소롭다 가소롭다 여자일신 가소롭다 못할나라 못할나라 부모생각 못

할내라 전생에 무삼지로 여자몸 되어나서 부모형제 이별하고 팔년무지 남의 집에 이십전을 출가하여 부모동기 다버리고 부모인정 생각하니 태산이 가득 하고 향해가 여상터라 ...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듯이, 서사에서부터 시작된 여자신세의 가소로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에서 촉발된 ‘遠父母 離兄弟’의 슬픔을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촉발된 슬픔은 매 구성단위마다 사친지정의 표출과 부모봉양에의 주제 환기로 연결된다. 다음에서 보다시피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감정이입을 나타내고 혼인준비에 신경 쓰는 부모의 노고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식의 서술은 자탄형 <사친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들딸이 분간없이 주옥같이 사랑하며 마른자리 진자리 가려가면 치우면 치울시라 더우면 더울시라 만단수심 골물중에 잠시라도 아니잇고 젖을주어 잠재우고 ...

- 우리같은 불초여식 백리밖에 보내두고 자정을 생각하여 비가오나 눈이 오나 잇을날이 있을소나 동지선달 치운날은 밤이면 치울시라 오락월 더운날은 땀이나 흘리는가 ...

- 자식사랑 우리부모 어전사위 가릴났고 ...

- 자정있는 우리부모 혼인안목 빈번하리 골물골물 안생각고 ... 녀너젊은 우리살림 부모간장 오죽하리 ... 음식강금 골물이라

- 자식사랑 우리부모 ... 혼인안목 색색하기 남보기야 좋거니와 ... 부모간장 오직하리 ... 가초가초 보내자니 그건심이 오작하리 ...

또한, 자탄형 <사친가>에서는 장면화된 기억을 더듬어 회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친지정의 표출을 강화하고 있다. 신행 장면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훈계와 석별지정을 표출하는 것은 여느 규방가사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어매(엄마/어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그 정도가 훨씬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폐백 광경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부모와의 이별을 서술하는 데 일정 부분을 할애한다.<sup>16)</sup>

친정부친의 방문 광경을 서술하는 다음의 부분만 보더라도 그 때 그 상황을 소상히 묘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오날이나 부친올가 내일이라 모친올가 날날이 시시세만 기다린차의 자식자정 우리 아붓님 오날이야 오는구나 문밖에서 절을하고 절에살똥 았았으니 심중소회 말씀들으니 반갑고 목이매여 안부도 못물겠네 소도잡고 게도잡아 삼사일을 유한후에 가실려고 뜨나시니 새로히 섭섭하여 안본것만 못할리라 대문밖에 내다서서 산모령이 나가도록 갑갑이 바라보니 염치없는 눈물이 두눈을 가리덮퍼 앞길이 치송하니...

이렇게 사친지정의 사무침을 토로하는 분위기는 후반 이후부터는 더욱 강해지는데, 다음에 제시한 것처럼 ‘三日入廚’의 과정을 소상히 다루면서도 관심의 초점은 여전히 친정부모를 사친하는 데 있음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구고님의 은덕보소 미거한 위인을 사랑시리 귀히하고 못드가기 유아같이 애홀하대 ... 이렇듯이 귀히하고 저렇듯이 사랑할 때 어리고 어린소견 부모생각 뿐이로다 ...

---

16) - 하로밤 지낸후에 아분님도 하직하고 한님도 배별할제 대성통곡 할듯한데 나는눈물 끊치고 문안에 들어서서 가는 것을 살펴본후에 문을닫고 네혼자 소리없이 우노라고 았았으니 ...

그래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면 다음에서처럼 감정적 표현의 양상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 사친지정 표출의 극점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규방가사에서 익숙하게 반복되어 왔던 출가외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여자유행의 불합리함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정조가 팽배하게 되었음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반갑도다 반갑도다 옛날보던 길이로다 ...
- 불버워라 불버워라 남자일신 불버워라 ...
- 원이로다 원이로다 지금죽어 환생하여 남자몸 되어나서 부모봉양 원이로다 ...
- 가소롭다 가소롭다 지금죽기 원이로다 ...
- 한이로다 한이로다 허사로다 허사로다 부모공덕 허사로다 ...
- 절통하다 부녀일신 만가지로 생각하니 절통하기 측양없다 ...

## (2) 월령형의 경우

월령형 <사친가>의 경우 사친지정의 감정적 표출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아무래도 곁돌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初頭와 末尾 부분의 표현이 고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고인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중심부에 서술된 내용이 곧바로 사친지정의 표출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월에서 12월까지 지속되는 월령 구성의 기본 틀이 단순하다거나 기계적으로 보인다는 인상적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호소형의 표현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월령형 <사친가>의 첫 번째 특징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월령형 <사친가>는 다음에서 보다시피 서사에서부터

‘청춘소년들’을 직접 호명함으로써 돈호법을 사용한 호소형의 표현방식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이 앞서 지적한 단점을 극복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正月이라 十五日에 玩月하는 少年들아 凶豊도 보려니와 父母孝養 생 각세라 …

서사에서 제시되는 돈호형의 어법은 매월마다 반복되는, 부모의 不在로 이 좋은 절기를 부모와 共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누군가에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적절히 살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느 월령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전고인용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지만, 다음에서 보다시피 그것에 역시 비례하여 ‘백구야’나 ‘벗님네야’와 같은 식의 돈호법이 사용되면서 감정의 호소력을 강화하고 있다.

- 五月이라 端午日에 … 백구야 나지마라 너자블 내아니라 일신이 한가 키로 너와노자 차жат노라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엇스니 대장부 살림 살이 이아니 녀넉한가 일촌간장 매친서름 부모생각 뿐이로다 … 슬프다 우리부모 鞦韆節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

- 六月이라 유두일에 … 江山風景 매양보니 風月이나 하야보자 吟風緩步 夕陽天에 村間로 도라오니 淸風은 徐來하고 明月은 滿庭이라 江山風景 이러하니 금지할이 누엇스리 어화 벗님네야 빈천을 한치마라 이러듯 노닐적에 슬프도다 우리부모 流頭節을 모르시나 그달그름 다지내고 …

여기에 ‘슬프다 우리인생 · 슬프도다 우리부모 · 슬프도다 세월이여’ 등과 같이 호소력이 짙은 표현까지도 변주되어 작품 전체적으로 정서적 고양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호소의 심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호소형의 어법을 결사에서는 청유형의 표현(“부모봉양 힘을쓰고 부대부대 명심하오…”)으로 이어받음으로써 구성상으로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그리운 마음을 적절히 토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곧, 서사와 결사 부분의 구성적 합치성이 주는 애상적 분위기가 ‘사친’ 주제의 형상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월령형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령형 <사친가>는 출가외인으로서의 사친지정 표출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외닿는 “思親之日 不多하니”에서 촉발되는 상황의 절박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곧, 매월마다 표출되는 이야기들은 그저 달마다 기념해야 할 절기별 행사여서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촉발된 ‘사친지정’과 ‘부모(생전) 극진봉양’의 주제의식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서 보다시피 월령형을 시작하는 첫 부분((1)의 단락)에서부터 결사 부분((13)의 단락)에 이르기까지 매우 잘 짜인 구성적 합치성을 갖고 있음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1) 正月이라 十五日에 玩月하는 少年들이 凶豊도 보려니와 父母孝養 생각세라 身體髮膚 四大節은 부모님께 타났스니 태산가치 노픈덕과 하해 같이 기픈정을 어이하야 이즈리오 천세만세 미덧더니 蓬萊方丈 瀛洲山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人力으로 어들손가 슬프다 우리人生 樹欲靜而 風不止 하고 子欲養而 親不在라 空山落木 一杯上에 영결종천 되겟구나 一年三百六十일에 一日事親 十二時라 …

(13) 一年一度 九十春光 덧업시 도라오니 無情歲月 若流波라 思親之日 不多하니 부모봉양 힘을쓰고 부대부대 명심하오 슬프도다 우리부모 한번가면 다시사나 생전에 극진봉양 힘쓰고 힘쓰소서

그래서 월마다의 사친지일 상기는 마무리 결사부분을 기준으로 짐작할 때 (여자여서 특히) 부모를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처지뿐만 아니라 (남자라도) 언젠가는 부모의 不在로 효양 불가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래서 효양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무친 ‘사친지정’을 비관적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화자가 ‘우리부모가 절기마다의 행사를 모르고’ 즐기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친지정의 사무침은 ‘여자유행’의 처지를 넘어 자식된 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남녀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된다. 서두에서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여자신세의 한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애상조가 되어버린 것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며,<sup>17)</sup> 결과적으로 자탄형 <사친가>와는 동일제목임에도 전혀 다른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同名異作’의 방향성이 갖는 의미

이 항의 관심사는 앞서 살핀 결과를 토대로 동일 제목임에도 유형마다 보여주는 작품의 구성적·표현적 차원의 특징들이 다르다는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주목하는 데 있다. ‘同名異作’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목하고 싶은 바가 바로 대상자료의 필사형태이다.

우선, 월령형 <사친가>의 경우 필사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한자어

17) 류종목은 <달거리>는 임이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독창, 음영조로 읊은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애뜻함을 느끼게 하는 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노래들 가운데 세시풍속을 잘 묘사하고 있는 요소들도 있어 민속적 이해의 자료가 되는 것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251-254면.

를 그대로 노출하여 표기하는 경우와 한글로 바꾸어 필사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正月이라 十五日에 玩月하는 少年들아/ 凶豊도 보려니와 父母孝養  
생각세라/ 身體髮膚 四大節은 부모님께 타났스니/ ...18)

- 정월이라십오일의완월흐든소년들아/ 흥풍도보려니와부모봉양생각하  
라/ 신체발부스디절을부모넘겨타났스니/ ...19)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중 단연 전자의 비중이 커서 월령형 <사친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자어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일정한 底本을 보면서 베껴 쓰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어느 작품에서나 脫字 여부를 확인한 듯 해당부분을 작은 글씨로 추가하여 채워 넣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14번 <思親歌>의 경우에는 “正月이라 十五日/ 玩月하는 少年들아”와 같이 한 줄을 두 부분으로 나뉘서 전체 16쪽 분량을 큰 글씨로 비교적 깔끔하게 필사하고 있는데, 글자간격이 어느 정도 넓게 잡혀 있음에도 脫字 부분은 아예 공란으로 비워놓고 있다. 1191번 <사친가>의 경우 10월령을 쓰면서 “세월이라 천마일에…”라 필사한 것은 아마도 소리나는 대로 쓴 결과라 보이는데, 이럴 경우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암기를 하였다든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 1833번의 경우이다. 이 작품은 후자의 필사방식을 선택하여 큰 글씨로 단정하게 필사하고 있는데, 7월령 중반까

18) 613번 <사친가 事親歌>, 614번 <思親歌>, 615번 <思親歌 사친가라>, 8번 <思親歌>, 16번 <달거리>가 해당된다.

19) 1833번 <사친가>와 1191번 <사친가>가 해당된다.

지만 필사한 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 “淸風明月 赤壁賦는 蘇東坡之 勝遊로다 淸풍명월적<sup>20)</sup> 정월수무달시  
날시죽하야이월수무여드러날필서호노라이난주야”

이러한 필사기록을 통해 이 정도의 분량을 필사하는 데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월령형 <사친가>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변이될 가능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령형 <사친가>의 필사작업은 여태껏 우리가 보아온 규방가사의 향수상황과는 궤를 달리하는 국면이 있게 되는 셈이다. 규방가사에서 한자로 표기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월령형 <사친가>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필사방식은 정확성·분석적 엄밀함·정정을 통한 효과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sup>21)</sup>

덧붙여 대상자료의 존재양상을 검토하면서 드러난 것처럼, 고정적인 텍스트에 의존하여 정확성을 기리는 쪽으로 필사되는 월령형 <사친가>의 방향성은 작품의 변이폭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잡가 방면으로의 接點을 갖고 활발한 교류상을 보여주는 쪽으로 연결된다. 물론 어느 것이 선행(혹은, 주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곤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이 가창가사의 가사 고정성·음률 의존성으로 연결되어 잡가 장르의 가창적인 국면과 호응하게 되면서 향수상의 자장을 파격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구

20) 이 부분에서 한 줄 이상 분량의 공백이 있다.

21) 윌터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9, 168면.

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탄형 <사친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상자료들은 더러 句의 구분을 적용하여 필사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띄어쓰기나 구의 구분 없이 줄글로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글로 표기하는 큰 원칙대로 필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월령형 <사친가>에서와 마찬가지로 脫字 여부를 확인하여 작은 글씨로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빈도나 비중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오히려 자탄형 <사친가>의 특징은 기억과 회상의 방식에 의존하여 작품을 구성하게 되면서 보다 사적인 감정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장면마다의 내용들은 이미 화자에게도 매우 익숙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규방가사의 여러 유형마다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모티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인지 자탄형 <사친가>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사자의 加減添削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어매 나올키워 백리밖에 치와놓고 할말도 많거니와 소회도 있건만  
은 ... 분주하여 말씀한번 못하옵고 음비든비 지내가니 신행날이 닷쳤구나  
... 가진단장 고이하고 가메안에 들어가니 어린동생 큰동생은 구석구석 눈물  
이요 늙은중 젊은중은 목을놓고 설허운다 ... 우리엄마 날길을제 밤이면 한  
비개요 들어시고 낮이면 한자리의 주옥같이 여기시고 잠시라도 아니잇더니  
백리타향 먼먼길에 날보내고 어이할고 내만치든 이개그럭 날날이 세로내고  
방안은 빈방이요 내당의있던 화초밭은 줄지로 없어지네...<sup>22)</sup>

22) 작품인용은 경북대본 <사친가>로, 이정옥의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에 실린 7번 작품이다.

- 우리어마 나을키워 백리밖에 출가하니 할말도 없고 소회도 있건만은  
 ... 분주하여 줄시라도 여가업서 말씀한번 못하옵고 엄병덜병 지내가니 신행  
 날이 닥쳤구나 ... 가진단장 고이하고 가메안에 들어가니 어린동생 큰동생은  
 어걱 눈물ियो 하니비 절문여비는 목을놓고 설허운다 ... 우리부모 날키울적  
 의 밤이면 한비개요 들어시고 낮이면 한자리의 슈족갓치 뉘기시고 슈옥갓치  
 스랑하여 잠시라도 아잇든지 백리타향 먼먼길에 날보내고 어이할고 내만치  
 든 이개그럭 다설거져 짐실으니 방안은 빈방ियो 너단니든 흥 □초밭터 이지  
 석지 하시드니 오죽하라 간중숫날 좃최도 없어지네 ...<sup>23)</sup>

이렇게 표현의 사소한 添削이 이루어져 길거나 짧아지는 변이의 양상은 거의 모든 작품에 해당된다고 볼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이런 양상이 극대화된 경우를 살피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서로 다른 두 작품을 <사친가>라는 제목으로 이어 붙여 필사하거나 <사친가>라는 제목을 달고 아예 중간부분부터 필사하고 있거나 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관상 (특히 제목부터가) 같아보여도 완벽하게 동일한 텍스트는 전무하게 되는 셈으로, 자탄형 <사친가>는 필사자마다 조금씩 변이의 지점을 보이는 유동적인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자탄형 <사친가>는 공동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되, 작품 하나마다에서는 필사자 개인의 개별적 특성이 가미되는, 이른바 구술성에 입각한 독창성(originality)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곧, 새로운 이야기의 줄거리를 생각해내기보다는 그때그때 창작과 향수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교류를 통해 작품 하나마다의 개별적인 고유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sup>25)</sup>

23) 작품인용은 <사친가>로, 이정옥의 『영남내방가사자료』3권에 실린 2번 작품이다.

24) 윌터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9, 200면.

25) 최진형은 고소설의 향유관습을 다룬 논의에서, 텍스트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 면모는<사친가>의 향수상에서 보다 사적인书信의 기능을 강화하는 면모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여탄가>의 기록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사친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성들이 친정을 떠나 시집살이를 하면서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는 친정부모(또는, 형제동기)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답신을 기다린다’라거나 ‘답신으로 주는 글’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서신왕래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표현들을 볼 때 사친가류는 ‘편지(서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상자료의 범주를 答歌류로까지 확대하는 별도의 고구작업이 요청되는 것이기에, 후속논의를 기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IV. 결론

이 글의 문제의식은 규방가사의 자료적 실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친가>에 대한 기왕의 연구사적 성과가 소략한 대신, <사친가>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료들은 의외로 양적 비중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친가>라는 제목으로 포괄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분류하여 대상자료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한 후(2장의 작업),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를 좀더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3장의 작업).

---

로써 작품의 생산에 창조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필사’를 통한 향유방식을 주목한 바 있다. 즉 필사를 통한 향유는 작품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독서행위’이며 가장 입체적인 ‘향유방법’으로, 텍스트 상호소통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최진형, 『고소설 향유 관습의 한 양상-장끼전 작품군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6면.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한 결과, 동일제목임에도 ‘자탄형’과 ‘월령형’이라는 두 유형을 기준으로 다수의 작품이 존재하였으며, 변이의 자장 안에서 이형태의 작품들도 존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친가>의 특징적 면모를 살핀 결과, <사친가>는 기왕의 규방가사 작품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왔던 ‘사친’ 주제를 본격화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특징적인 형상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同名異作’의 형태로 <사친가>가 필사/향수되면서 각기 지속적인 향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소개된 작품들을 보다 면밀히 주목하여 작품 이해의 기본틀을 공고히 다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273-284면.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학과언어』11권1호, 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2-3면.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제32집, 고전문학연구회, 2007, 139-140면.  
 박준규, 『월령체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35-38면.  
 봉화군, 『전통문화의 맥』, 경북인쇄소, 1983, 21면.  
 봉화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22면.  
 윤형덕, 『사친가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논문집』34권1호, 충주대학교, 1999, 11-39면.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251-254면.  
 이규순, 『규훈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5-6면.



-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23면.
- 이재수, 『女子自歎歌 研究』, 『동양문화연』2집, 동양문화연구소, 1975, 2-9면.
-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7-11면.
-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1권, 3권, 국학자료원, 2003, 21-322면.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10-328면.
- 이태호, 『월령체가의 내용적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70, 12면.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12권, 24권, 39권, 여강출판사, 1992, 21-27면.
- 조금상, 『사친가류 가사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3면.
- 최규수, 『홍씨부인 계녀사에 나타난 자전적 슬화의 글쓰기 방식과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221~238면.
- \_\_\_\_\_,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욕망과 ‘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8, 319~350면.
- \_\_\_\_\_, 『아버지 作 誠女歌의 變移樣相과 詩歌教育的 含意』, 『어문연구』36권4호, 한국어문연구회, 2008, 323-347면.
- \_\_\_\_\_,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貴女歌>의 특징적 면모와 ‘貴女’의 의미』, 『한국시가연구』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341-369면.
- 최진형, 『고소설 향유 관습의 한 양상-장끼전 작품군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6면.
-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양상과 전승과정 연구』, 『판소리연구』30집, 판소리학회, 2010, 353-354면.

ABSTRACT

The material condition and distinctive aspect of <Sa Chin Ga>

Choi, Kyu-Soo

The critical mind of this writing has arisen from the interest on the actual material conditions of Kyubang Gasa. While past research-historical results on <Sa Chin Ga> are rough, I realized there are plenty of materials that can be included in discussion. So, in this writing I assorted a series of material covered as <Sa Chin Ga> for titles, reviewed the object materials (works in Chapter 2), and then studied by subdividing the distinctive aspect of <Sa Chin Ga> (works in Chapter 3).

Through examining the material condition of <Sa Chin Ga>, I found there were many products in two types as 'self-grief type' and 'monthly description type' and also existed products in the variation of this kind. On the basis of the result, I reviewed the distinctive aspect of <Sa Chin Ga>. <Sa Chin Ga> regularizes the theme of 'missing parents' that has been treated attendantly, and shows distinctive embodiment method that is differentiated by types. It is meaningful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Sa Chin Ga> is enjoyed as a type of 'same title - different products' based on continuous homesick and each products intensify the base of continuous homesick.

**Key Words** Sa Chin Ga [missing parent song], (women) Ja tan Ga [self-grief song], Wol Ryung Ga [monthly description song], missing parents, filial piety, Kyubang Gasa

논문투고일 : 2012. 04. 21  
심사완료일 : 2012. 05. 29  
게재확정일 : 2012. 06. 05